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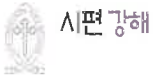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특별 계시

(시편 19:7-1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다윗은 반석이시고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애소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구원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그 반석 위에 구원 받은 이들은 새로운 집을 짓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노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아라”(벧후 1:14)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시대까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음성은 곧 사라지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여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과 시편 19편은 동등한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는 가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기록된 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1. 시편 19편은 두 개의 시인가?

시편 19편을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전반부는 자연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특별 계시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은 하나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오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Elohim(엘로힘)으로 부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름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데 이것은 구원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6절에서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태양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이것은 영혼을 위해 필요한 율법을 대칭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도 이 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임을 보여줍니다.

2. 순종해야 할 말씀

율법은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으로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Torah)을 모세 오경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Torah는 포괄적인 용어로 율법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님 자신이 입증한 진리를 뜻하며 교훈은 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외하는 도는 계시에 대한 응답을 하는 이에게 주신 성경을 말하며 법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이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경외하는 도와 법은 각각 표현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다윗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바울은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므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7절). 완전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을 다루기에 잘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만족한 계시입니다.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7절).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하나님은 믿음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만족과 기쁨과 영생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우둔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로 1:25). 그러나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8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은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이처럼 여호와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8절).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며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춥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9절). 사람에게 지식이 생기면 교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9절).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확실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들로 경고를 받으며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경고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에 대해 다윗은 두 가지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큰 죄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마치 인간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묘한 성격과 복잡성을 알고 고의로 지은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13절).

그리고 다윗은 반석이시고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애소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구원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그 반석 위에 구원 받은 이들은 새로운 집을 짓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14절).

자기를 계시해주신 영원히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학 수호 목회자 비상 기도회

1월 19일(목) 오후3시 영락교회에서

최근에 선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우리 기독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크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시행세칙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나 교회는 민주교육과 신앙교육을 보장하는 재계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사학을 살리고 기독교 학교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1월19일(목) 오후 3시 영락교회에서 비상기도회를 열어 하나님께 호소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의인들이 부르짖는 기도회에 뜻있는 성도들의 참여도 기대한다

주일 오후 찬양예배 출석 강조

지난 13일(금) 교역자회에서는 교회 중직자들의 예배모범을 위하여 주일 오후 찬양예배 참석을 강조하며 권면기로 하였다. 특별히 중직자(장로, 권사, 집사)로 선출을 할 경우 오후 찬양예배에 출석하지 않

는 이들은 추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청지기 수련회 은혜 중에 마치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었던 청지기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치었다. 담당 교역자의 말씀과 강의로 진행된 이번 청지기 수련회는 예배 찬양 교육 전도 선교 교구 섬김위원회 중직자들이 새로운 결심과 헌신의 귀한 자리매김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2006 청지기수련회 참석현황은 기대만큼 참석율이 높게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청지기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에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한다.

<청지기 수련회 출석현황>

부서	참석율(%)
예배위원	37%
찬양대원	35%
교사	38%
전도/선교위원/전도대원	71%
교구일꾼	43%
섬김위원	41%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47%

2006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중등부: 1월16일(월) - 18일(금)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고등부: 1월19일(목) - 21일(토) 충신 기도원

2006년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금주부터 시작된다.

금주 중에는 중등부가 1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3일간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고, 고등부는 1월19일(목) 부터 21일(토)

까지 충신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도록 기도한다. 교육 부서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박금실 전도사
유치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이규정 목사
유년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이태훈 목사
초등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이성득 목사
중등부	1/16-18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세우는 집	윤영국 목사
고등부	1/19-21	충신기도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종운 목사 박광일 전도사
대학부	2/9-11	승동기도원	주님의 기도	이종운 목사 서명철 목사
청년부	2/10-11	미래내수양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종운 목사
신혼가정부	2/18	미정	주님의 기도	이규정 목사
디아스포라	2/17-18	서울교회	주님의 기도	이종운 목사 윤영국 목사 박광일 전도사
에바디부	2/28-3/1	미정	주님의 기도	이종운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8	미정	주님의 기도	이규정 목사

주일 2부예배 후 세례준비반 신설

1월22일(주)부터 609호실에서

세례준비반이 지금까지 주일 1부예배 후에만 실시되어왔으나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증가와 더불어 편의를 돕기 위해 세례 준비반을 다음 주일(1월22일)부터 주일 2부예배 후에도 609호실에서 실시한다.

교역자 임시 보직 변경

5,6교구와 교구위원회, 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하던 오정식 목사가 지난 주 사임함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임시로 일부 교역자들의 보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교구위원회 지도: 지혜영 전도사
- 5,6교구 지도: 지혜영 전도사
- 고등부 지도: 윤영국 목사
- 청년부 지도: 서명철 목사

교역자 청빙

접수마감: 1월27일 오후 1시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할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안수받은자로 하나님의 목회 비전을 가진 자이다.

제출서류는 자필이력서 1통, 본 교단 소속목사 추천서 1통,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 자기소개서 및 목회소견서 1통, 운전면허증 사본 1통이다.

접수 마감은 1월27일(금) 오후 1시이며 우편물 접수 시 소인이 27일 이전이어야 한다.

결과 통보는 서류, 면접 심사 후 10일 이내에 개별 통보한다. 교역자 청빙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아멘 관현악단 피아니스트 임명

교회는 아멘 관현악단 피아니스트에 박영애 집사를 임명하였다.

2006년 농어촌100교회 후원 작정 명단

번호	이름	구좌
126	아브라함선교회	1
127	1-22다락방	0.5
128	김철호 안미경	1
129	김경태 김민태	1
130	차도훈 남태영	1

다음주 계속

2006년 일꾼들에게 듣는다

나뉘야 할 사랑

이근대 성도 (청년부 회장)



처음 서울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날,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전히 제게는 너무도 감사한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부 선배, 동기, 후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하나님은 제게 청년부를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6년 동안 청년부에 머물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받은 사랑을 청년부에 쏟으라 하십니다. 우리 청년부는 무엇보다도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좇아 행동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닌 오히려 섬기러 오신 우리주님처럼 소외된 영혼을 돌아보며 어려운 형제자매를 섬기는 청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명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제 청년부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고전 1:27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청년부를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의 때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공진문 권사(사라전도회 회장)

하나님 아버지, 사라 회원님들 기도하는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복음의 산실이 될 서울교회를 위해, 당회장 이종윤 목사님의 강권하심을 위해,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의 평강과 복음의 계대를 위해 각 가정들의 평안과 은총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라 전도회원들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칠 십이요 강건하면 팔 십인데 우리가 살아갈 날은 주님의 사랑을 다 알기에도 부족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날 까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는 사라 회원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과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며 항상 빛 가운데로 걸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자세로 성실하기를 원하며 역경이나 고난도 슬픔도 이길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문에서 불러주실 아버지의 음성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편지였습니다

개정 사학법 속히 철폐되기를..

이종윤 목사님께 올립니다.

저는 기독교학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S고등학교 교장으로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목사님께 글을 드립니다.

이번 4일부터 6일까지 4회에 걸쳐서 논해미야 강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학 악법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모두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장 정년이 아직은 5년 남아있지만, 기꺼이 교장직을 버리고 싸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D고등학교 명예이사장님과 저희 K 이사장님도 또한 모든 참석하신 교장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장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종윤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다는 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지갑이 없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에서 천만금보다 더 귀한 설교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속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교장들은 말없이 눈물 흘리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학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주십시오.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교 연합회 회장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전도학교 수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박길의 성도(13교구)



5년 전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평소와는 달리 어머니에 대해 행동이 심하게 거칠어지셨고 심한 경우 폭력까지 행사하시어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수술 전의 친정아버지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상하시고 어머니와 여행도 자주 다니시던 화복한 집안의 가장 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번 다친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세월이 빨리 흘러 다 같이 죽기만 바랐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사심방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의를 구하면서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생애에서 손잡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하세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천정에 한 알의 밀알이 되세요. 집사님 사명이 큼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망 자 대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기도 하다가 16기 전도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70인 전도대 목요 축호 팀에 들어가서 전도실습을 하였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이었습니다. 2명씩 조를 이루어 가가 호호 벨을 누르면서 전도하였는데 "나는 조상 만을 믿습니다."하는 할아버지, 전도용 휴지와 음료수들도 문 밖에서 내놓으며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라는 분 등이 있었지만 저는 한 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었고, 등록하실 듯하다가 등록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체험했습니다.

전도실습을 하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자가 현금 송 찬양하는데 교회에 오실래요? 끝나고 식사 예약해 놓을게요." 친정 부모님은 흔쾌히 승낙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여쭙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뭐 어쩌냐? 그냥 절도 교회도 구경 가는 거지" 엄마는 구경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도 했습니다.

설교시간에 친정아버지는 "아멘"으로 크게 답하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202호실에서 순순히 등록하시면서 목사님과 사진 찍고 새 가족부에 올라가셔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줄을 쳐가며 들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신 것입니다. 친정아버지는 집에 가서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셨고, 요즘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친정 아버지의 밝은 인상을 보며 이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70인 전도대에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고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시민양성-필그림중창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필그림 중창단

한선현 성도(청년부)

2006년 1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3부 예배 필그림의 첫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지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첫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올리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충만한 임재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자리이며,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자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이 임한 곳에 성령

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훈 목사님과 필그림 찬양단원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터를 놓은 필그림은 이제 새롭게 청년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한 엄청난 부흥을 기대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적 예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그런 예배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적은 수의 성도들이 3부 예배전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에게 계속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자리가 점점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우리 서울교회에 민족과 문화, 언어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젊은 필그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9교구 10교구 전체 심방

9교구와 10교구(지도: 서명철 목사) 전체심방이 금주부터 매 주 화, 목, 금요일에 실시된다.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열린도서실 도서기증 받고 있어

우리교회가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하여 1층 102호실에 마련한 열린도서실에 비치할 도서를 계속 기증받고 있다. 성도 가정에서 더 이상 보지 않는 좋은 책을 도서실에 기증하여 주시면 필요한 이들에게 대여하여 함께 읽게 된다.

도서실 개관시간(주일 오후 1시-4시30분, 주중 오전 10시-오후10시) 중에는 도서실에서의 모든 집회나 개인적 목적으로 도서실 사용은 금한다.

1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머그컵 세트를 드리고 있다.

<성경통독자 명단>

- 필사 1회 : 오충례 권사(2교구)
- 7 독 : 이동수 장로(12교구)
- 1 독 : 배재송 집사 이재순 성도 이해순 권사 임분도 권사 최정순 권사 (3교구) 홍성주 장로(8교구) 황정욱 집사 (12교구) 강민자 집사 김장섭 집사 박성희 집사 박영순 집사 송인숙 집사 이미송 집사 조건영 성도 최춘숙 집사(13교구)

등정

- 이종운 목사는 아세아 로잔 위원회 실행위원회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집하고 16일 출국하여 18일 귀국한다. 20일(금) 총회주제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최양진 집사 가정 역삼동 757 래미안@ 손재겸 권사 가정 안양시 관양1동 현대@
- 승진: 송영재 집사(11교구) 삼성물산 건설부문상무(보)이사 노병호 성도(3교구) 엔씨소프트부사장(개발총본부장)
- 주간 식당 봉사: 권사회(1월15일) 발립선교회(1월22일)

천국시민양성-고등부 수련회

가자! 고등부 겨울수련회

박원옥 집사(고등부 교사)

어느덧 또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새해와 함께 맞이하는 겨울방학기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1월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충신기도원에서 2006년 서울교회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가지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등부 겨울수련회에서는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해설특강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녁찬양집회 시간에는 윤영국 목사님과 이태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등부NLC 친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교사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도의 방을 이용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장에서는 영적 도전과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의 훈련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기도로서 이겨낼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학생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캠프화이어와 눈썰매장에서의 즐거운 공동체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교사선생님들은 이번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이번 겨울수련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설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역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중 진행되도록
2. 임병민은 일꾼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3.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